

beyond

The In-flight Entertainment Magazine of **KOREAN AIR**

February 2014 Vol. 89

책 속에서
투썸플레이스
아메리카노
무료 쿠폰 이벤트를
찾아보세요



근대 사진의 원형, 알프레드 스티글리츠
Alfred Stieglitz, Origins of Modern Picture

예술과 가구의 경계에서 '아트퍼니처'는 작가의 창작력이 녹아 있는 예술 가구를 말한다. 제품과 작품, 기능과 표현의 경계에서 예술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만족시킨다. 사전에는 없는 단어이지만, 꽤 예전부터 존재해 온 개념이다. 한국에서 처음으로 아트퍼니처를 시도했던 '세대 퍼니처 아티스트' 최병호 작가가 뉴욕에 위치한 프리드먼 벤다 갤러리에서 개인전을 갖는다. 한국에서 아트퍼니처란 장르를 개척하며 많은 후학을 길러온 그는 나무나 돌 같은 자연 소재를 사용해 한국인이 갖고 있는 동양적 정서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다고 평가 받는다. 2007년에는 비트라디자인 미술관의 알렉산더 폰 베게사크 관장이 그의 작품을 보고 한눈에 반해 미술관에 소장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뉴욕의 메트로 폴리탄미술관에도 작품이 소장되어 있을 만큼, 한국 가구 디자인사의 흐름을 바꾼 인물이기도 하다. 전시는 2월 27일부터 3월 29일까지 이어진다.

BETWEEN ART AND FURNITURE

'Art Furniture' is a term that refers to artistic, creative pieces of furniture. These works cross the fine line between product and art, as well as function and expression, while satisfying both artistic merit and practicality. Though the term cannot be found in dictionaries, the concept has been in use for a long time. Choi Byung-hoon, one of Korea's first-generation furniture artists, will hold a solo exhibition at Friedman Benda in New York. He blazed the trail for the genre of art furniture and subsequently cultivated a younger generation of artists. He takes natural objects such as trees and stones and uses them to create a contemporary reinterpretation of his unique, Asian sentiments. In 2007, Alexander von Vegesack, director of Vitra Design Museum, fell so deeply in love at first sight with Choi's work that he decided to exhibit a collection in his gallery.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in New York also displays Choi's work. The exhibition by this transcendent artist, who changed the course of furniture design history in Korea, will run from Feb. 27 to March 29. ■ by 김민정 Kim Min-jung



애프터이미지 오브 비기닝 013-392
Afterimage of Beginning 013-392, 2013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와 도시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가 남긴 업적은 뉴욕의 구겐하임미술관이나 낙수장 같은 몇몇 건축물이 전부가 아니다. 1920년대 후반 경제 대공황을 겪으면서 그는 미국의 도시 집중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계획에 착수했다. 그 결과물인 '브로드에이커 시티'와 새로운 형태의 주택 건물 등을 통해 당시 미국의 도시 팽창에 관한 그의 생각을 엿볼 수 있다. 뉴욕현대미술관에서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의 도시화 계획을 볼 수 있는 전시가 6월 1일까지 열린다.

Frank Lloyd Wright and the City

Frank Lloyd Wright's legacy isn't limited to the Guggenheim Museum in New York and *Falling-water*. During the Depression in the late 1920s, Wright attempted to resolve intense urban density. His "Broadacre City" project and modern house designs provide us with a glimpse into his thoughts on urban expansion in America in the 1920s and 1930s. An exhibition of Wright's urbanization works will be held at the Los Angeles County Museum of Art from Feb. 1 to June 1.

© The Frank Lloyd Wright Foundation Archives

CHOICE



Marcel Wanders
마르셀 반더르스
네덜란드 디자이너 마르셀 반더르스의 전시가 2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암스테르담 시립미술관에서 열린다. The exhibition of Dutch designer Marcel Wanders will be held from Feb. 1 to June 15 at Stedelijk Museum in Amsterdam.



Fútbol: The Beautiful Game 축구, 그 아름다운 게임
2014년 브라질 월드컵을 기념해 축구를 주제로 한 전시가 2월 2일부터 7월 20일까지 LA 카운티미술관에서 열린다. An exhibition commemorating the 2014 FIFA World Cup in Brazil runs from Feb. 2 to July 20 at the Los Angeles County Museum of Art.